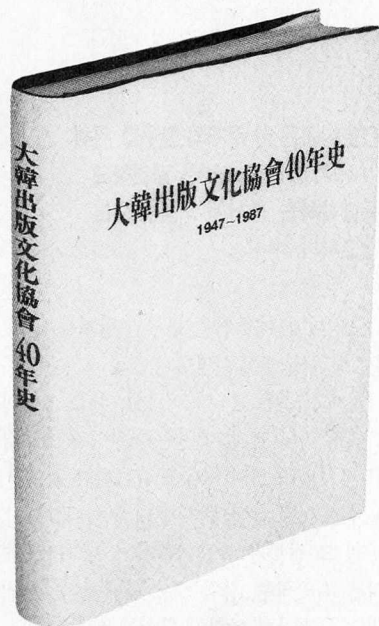


개화기 이후 出版史 한눈에

출협, 「大韓出版文化協會 40年史」(1947-1987) 펴내



1947년 3월15일에 창립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大韓出版文化協會40年史」(1947~1987·46배판 628면)를 펴냈다. 이 출협 40년사는 우리나라의 출판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온 단체의 역사라는 점에서 간행의 의의는 크다.

이 책에는, 해방후 혼란의 와중에서 出版立國의 기치아래 정부수립보다 한발 앞서 자생적으로 태어나 거듭되는 정치변동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오늘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자부하는 출판문화의 성과를 이룩한 우리 출판계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해방 직후 좌우익 대립의 선전물 범람의 시기, 6·25전란으로 인한 좌절을 극복하고, 해방 후 교육용 도서(교과서와 참고서)의 편찬·공급으로 인력개발에 공헌하였으며, 70년 하반기 이후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국면에 있어서 책이 국가발전의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한 그 과정이 이 책 전체에서 파노라마와 같이 전개된다.

제1편 한국출판과 出協40년, 제2편 出協의 사업과 활동, 제3편 자료, 제4편 便覽으로 구성, 많은 사진자료를 곁들이는 이 책의 간행사에서 林仁圭회장은 “40년 협회사를 편찬하여 지나는 발자취를 더듬고 선배 출판인들의 숭고한 뜻을 음미하면서 다가올 시대를 예비하기로 하였다”고 간행 취지를 밝히고 있다. 다음에, 이 책을 통해 한국출판의 현대사의 흐름과 협회의 존재의의를 조명해 본다.

培材學堂 인쇄소가 民營의 효시

먼저 제1편 제1장의 「創立前史」(1883~1945)에서는 ‘韓末의 출판’과 ‘日帝下의 출판’이 개화기 이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의 출판 이야기로 시작되어 독자의 흥미를 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식 출판이 시작되기는 1883년(고종20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전해)의 일이다. 이 해에 정부가 신문을 인쇄하기 위해 현대식 활판 인쇄술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漢城旬報」를 발행한 것이 처음이고, 2년 뒤 培材學堂(1885년 설립)에 그리스도교 선교사업으로 인쇄소가 차려진 것이 民營의 효시로 기록된다.

그 뒤 1900년대에 들어서 개화의 촉진으로 인쇄시설이 갖추어지고 우리나라 출판의 여명기를 맞게 되는데, 이 시기에 나타난 출판사와 신문사 그리고 관계자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 단편적이거나 당시 출판사의 사세

와 그들의 설립 목적을 회고할 수 있다.

右文館(관장 金宗漢외 20명) 普文社(사장 閔健植외 13명) 普成館(관주 李鍾浩외 3명) 普成社(사장 金滋炳외 7명) 徽文館(관장 閔大植외 8명) 大韓國文館(관장 洪肯燮외 12명) 國民新聞社(사장 李容九외 7명) 大韓每日申報社(사장 裴說외 13명) 帝國新聞社(사장 鄭雲復외 8명) 大韓新聞社(사장 李人植외 12명) 塔印社(사장 朴基鵬외 3명) 등. 이밖에 이들 인쇄를 겸업한 출판사 외에 판매를 겸업으로 한 출판사는 大韓國民教育會·로익형책사·廣學書舖·大邱石室舖·義進社·大東書市·中央書館·博文書館·滙東書館·皇城書籍業組合·唯一書館·同文社·大韓書林·옥호서림·普反書館·皇華書齋·後文書館·興文館 등이다.

그후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대한제국’이 ‘조선’으로 개칭되고 일본국토의 한개 지방으로 격하되어, 이런 정치적 변혁이 출판계에도 여실히 나타났다. 서울지역 출판인의 유일한 모임인 ‘皇城書籍業組合’도 1911년 4월 ‘京城朝鮮人書籍商組合’으로 개편 발족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출판인 단체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일제하의 간악한 출판탄압 속에서 개화기 이래 반세기를 일관하여 불후의 업적을 남긴 출판사로는 博文書館을 들 수 있다. 창업주 盧益亨씨의 “한국에도 신문화가 수입되기 시작하는데 책전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했다”는 소박한 솔話が 소개되어 있다. 박문서관의 출판목록 중에서 중요한 것을 소개하면, 「現代長篇小說集」·「新撰 歷史小說集」·文世榮撰「朝鮮語辭典」·「方定煥全集」 등을 들고 있다. 이밖에 東洋書院·滙東書館·

개화기와 해방 이후 거듭된

정치변동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동안 우리 출판문화는

질과 양에 있어 커다란

성장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출판협회의

발자취를 통해, 출판이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출판운동의 자료총람이라 할 만하다.

廣益書館·朝鮮光文會·學藝社·漢城圖書株式會社 등의 출판업적도 눈길을 끈다.

해방후 ‘左協’에 맞서 협회 창립

제2장 「草創期」(1945~1950)에서는 해방 직후 出版人들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正音社의 최영해, 三中堂의 서재수, 乙酉文化社의 민병도·정진숙·윤석중·조풍연 등 4명과 高麗文化社의 유명한 이강림·김창집·임병철 등이 해방출판계의 개척자들이다.

이 당시의 출판·언론정책은 38선 이남은 미군정의 관할하에 속했다. 1947년 6월3일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정부로 개칭되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 선포된다.

미군정 당국은 1945년 9월11일 군정법 제11호를 발하여, 일제가 우리 민족을 압박하기 위해 1910년 2월에 제정한 ‘出版法’과 1925년 5월에 제정한 ‘治安維持法’ 등을 폐지하고, 이어 군정법령 제19호로 ‘出版登錄制’를 실시했다.

특히 해방직후(1945년 8월~12월)의 출판 목록이 눈길을 끈다. 불과 4개월 사이에 40개사가 출판한 43종의 목록 가운데는 100면 미만의 얇은 책이 23종이나 포함되어 있다. 출판자유의 물결을 타고 해방후 가장 먼저 출판된 책은 朝光社에서 나온 秋山人編 「朝鮮人民에게告함」(1945년 9월, 71면, 정가 3원)으로 기록되었다.

다음에 주목을 끄는 대목은 1947년 3월15일에 발족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창립 경위이다. 이 시기의 사회상은 소위 좌우익의 사상 대립으로 혼란이 극심하였다. 이때 독립국가 의 손색없는 출판문화 창달을 위해 출판협회를 조직한다는 데 金昌集·金亨燦·盧永錫·崔暎海·李晶來·成仁基 등 5, 6명의 뜻이 모아졌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서두르게 한

동기는 1946년 말에 먼저 좌익출판물을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조선좌익출판협회’(左協)를 결성하는데 있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전신인 조선출판문화협회의 회칙 제3조는 “본회는 출판자유의 확보와 조선출판문화의 건설 및 향상발전과 동업자간의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런 취지는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면면히 계승되어 모든 출판인의 지표가 되고 있다.

출판진흥정책에 지속적 관심

제2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활동은 출판진흥정책이다. 출협이 직능단체로서 종합적인 출판진흥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와, 80년대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진흥책으로서 집약된 것이 국가적 수준의 계획수립기구로서 ‘국가도서개발위원회의 설치’ 주장이다. 그 골자는 도서개발목표 설정을 위해서 ① 장기 국가종합개발계획에 도서개발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② 문화향상에 근원이 되는 출판사업을 개발육성할 전담기구를 정부내에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제2편을 개관하면, 출협사업의 주요목적이 ‘출판진흥정책의 실현’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출협은 60년대 하반기 이후 매년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대정부 결의문에서 ‘국가적 수준의 도서개발위원회 설치’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화발전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차지하는 역할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보다도, 직능단체의 노우하우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문화 행정의 이해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자료」편은 해방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도서발행추이와 연도별·분야별 도서 평균발행부수 추이를 도표로 표시하여 우리 출판계의 성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또 출협의 주요건에서·선언문·결의문을 모두 수록하여 출협이 출판진흥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출협인 스스로는 어떻게 그 책무를 담당할 것인가를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나라 개화기 이후 현대출판에 이르기까지 출판인들이 쌓아온 출판운동사의 총람으로서 출판연구자에게도 훌륭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